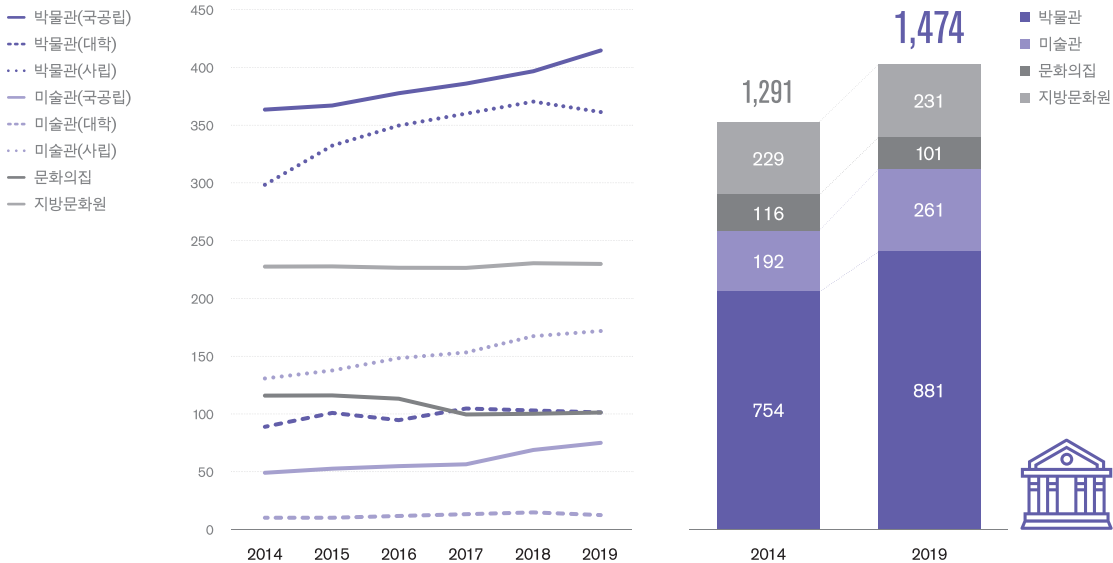


# 전국에 문화시설은 얼마나 많고, 얼마나 늘었을까?

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매년 공공건축물 통계자료집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>을 발간한다. 이 통계자료집은 공공건축물 일반현황, 계약현황, 인구로 보는 공공건축, 테마통계(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, 서비스 인구 대비 현황 등)로 구성되어 있다. <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9>에서는 테마통계 대상을 문화시설\*로 진행하였다. 이 글에서는 국내 문화시설의 현황과 지자체별 분포,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간추려 소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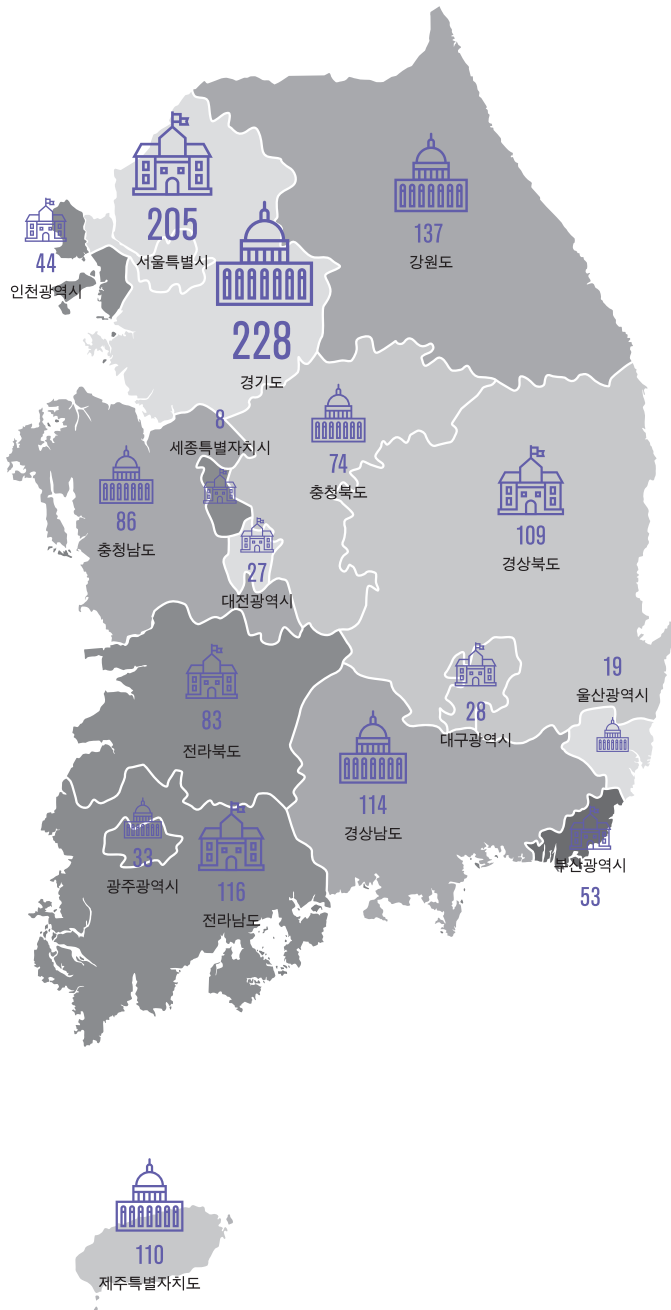
## Q 우리나라 문화시설, 얼마나 많은가?



## A 지난 5년간 문화시설은 꾸준히(연평균 2.7%) 증가

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정보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의집, 지방문화원 개소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(연평균 2.7%)하고 있다. 유형별로는 미술관이 가장 많이 증가(연평균 6.3%)하였고, 박물관(3.2%)에 이어 지방문화원(0.2%)과 문화의집(-2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\* 문화시설이란 「문화예술킨흥법」 제2조에 따른 전시시설 중 '박물관·미술관'과 지역문화활동시설 중 '문화의 집', 문화보급·전수시설 중 '지방문화원'으로 한다.



Q 어느 지역에 문화시설이 많은가?

A 전국 문화시설의 32.4%가 수도권에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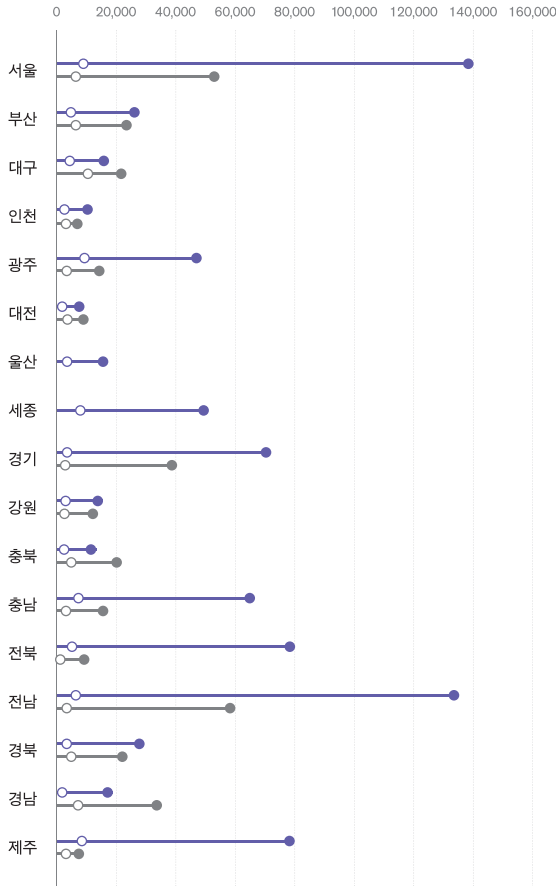
2019년 기준 문화시설 3곳 중 1곳이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에 위치하고 있다.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·도는 부산광역시(8.0%)였으며, 대전광역시(0%)는 5년 전과 문화시설 개소 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. 증가율 상위 5개 시·도 중 4개가 특별·광역시(부산, 세종, 광주, 인천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5년간(2014 ~ 2019) 문화시설 증감률

- 1.10% 미만
- 1.10% 이상 ~ 2.37% 미만
- 2.37% 이상 ~ 3.39% 미만
- 3.39% 이상 ~ 5.93% 미만
- 5.93% 이상
- 문화시설 수(2019년)

### Q 어느 지역 문화시설의 면적이 클까?

— 박물관 ● 최대값 ○ 평균값  
— 미술관 ● 최대값 ○ 평균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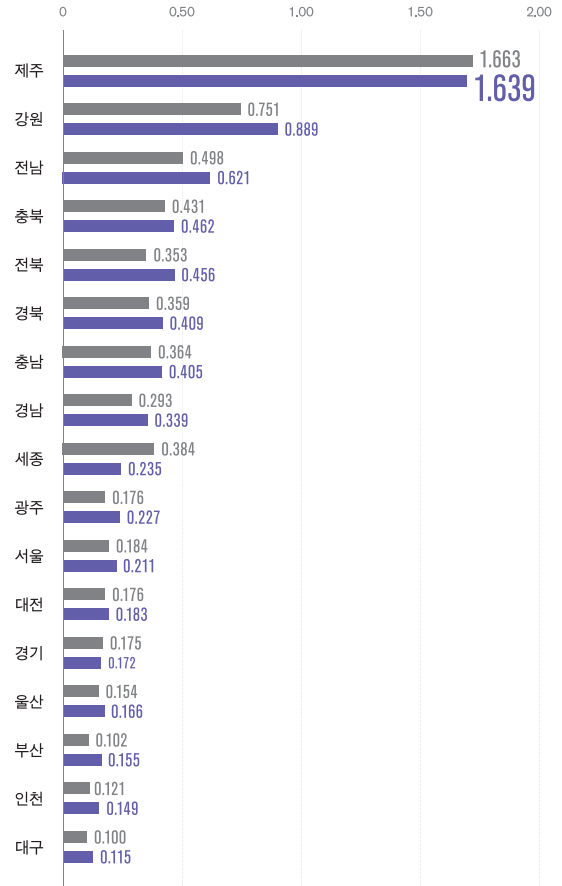


### A 박물관은 서울이 가장 크고 충북이 가장 작으며, 미술관은 대구가 가장 크고 전북이 가장 작음

전국 문화시설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은 박물관(4,715m<sup>2</sup>), 미술관(3,445m<sup>2</sup>), 지방문화원(939m<sup>2</sup>), 문화의집(724m<sup>2</sup>)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. 박물관의 평균 연면적은 서울(8,921m<sup>2</sup>)이 가장 크고 충북(2,183m<sup>2</sup>)이 가장 작으며, 미술관은 대구(9,628m<sup>2</sup>)가 가장 크고 전북(1,310m<sup>2</sup>)이 가장 작았다. 박물관과 미술관은 특별·광역시보다 도 지역에 비해 크고,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은 도 지역이 특별·광역시에 비해 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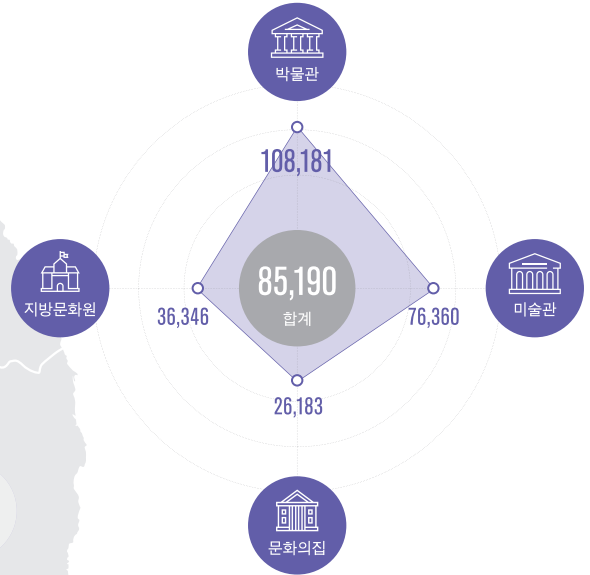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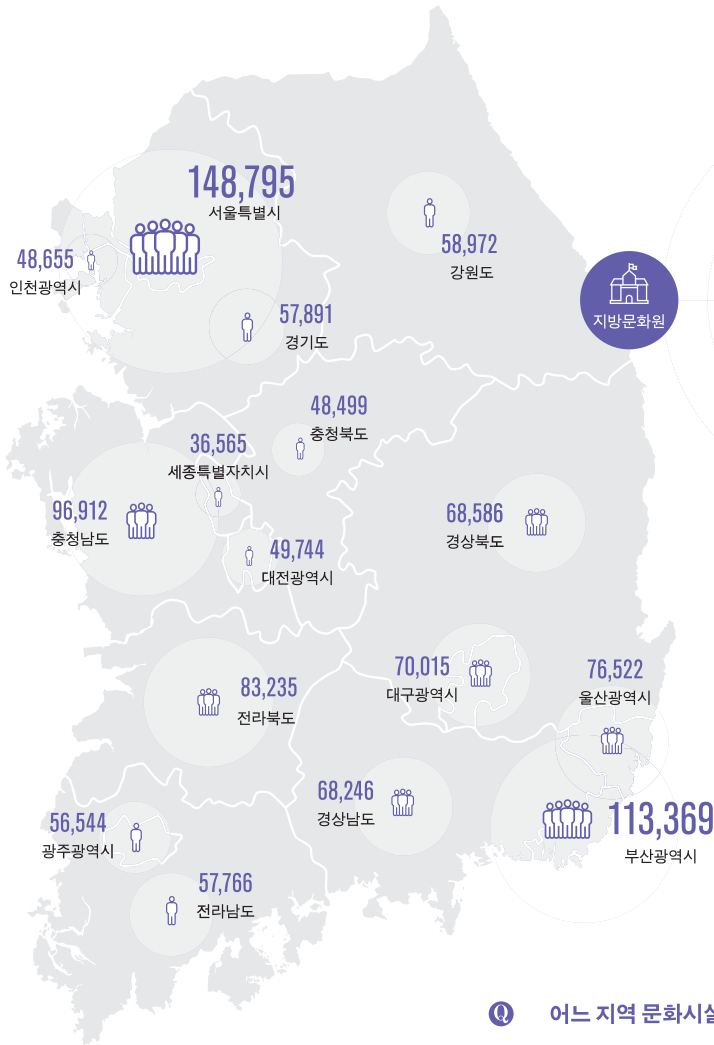
### Q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많거나 적은 지역은 어디일까?

■ 2014  
■ 2019



### A 2019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

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은 0.252곳(2014년)에서 0.284곳(2019년)으로 증가하였다. 2019년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(1.639곳/1만 명)이며,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(0.115곳/1만 명)로 나타났다.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도 지역이 특별·광역시에 비해 2배 많고,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광역시에 비해 14배 많다.



**Q** 어느 지역 문화시설의 이용객 수가 많을까?

**A** 2019년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

2019년 문화시설 한 개소당 연평균 이용객 수는 박물관(10만 8,181명)이 가장 많고, 문화의집(2만 6,183명)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연평균 문화시설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(16만 7,342명)이며, 서울특별시(14만 8,795명), 부산광역시(11만 3,369명) 순으로 나타났다.